

교육금고 지정 · 운영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도교육청,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규칙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

금고지정 적용 범위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북도교육청이 교육금고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금고 악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일부개정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지정의 적용 범위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금고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되고 반기별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금고 악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조항도 신설됐다.

협력 사업자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교육감은 금고악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운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도 교육부 예규 개정사항과



먹이찾은 방울새 한쌍

기마술더위가 가슴을 부리고 있는 8일 오후 어느 들판에서 방울새가 시든 해바리기에 애아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자체 조정사항을 반영해 변경한다.

또 평가항목의 순위간 점수차리를 점수에서 비율로 평가하도록 변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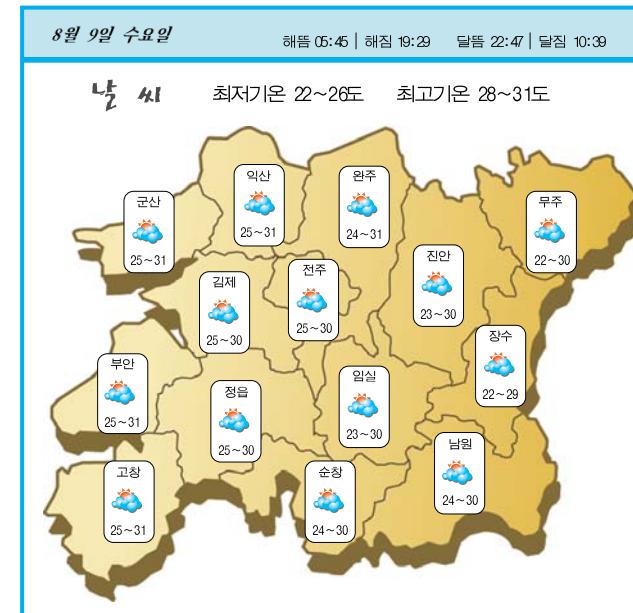
는 등 세부항목별 평가방법을 변경·추가했다.

이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규칙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차기 금고지정 절차에 들어가 오는 10월쯤에는 교육금고 운영

을 맡을 금융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모험과 취·창업' 4개 교양강좌 운영

"전북대만의 특별한 교양강좌로 모험정신 키워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수업을 통해 생생한 기업 현장을 접하게 하고 전문가와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화된 교양교과목을 마련해 학생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오는 2학기부터 외부 명사와 학생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현장 경험을 전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모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험과 취·창업'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는 것.

이 교양 교과목은 외부 인사의 기부금 또는 재능기부를 통해 모금한 자원으로 명사 초청 특강이나 다양한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2학기부터 4개의 분야로 개설돼 운영된다.

'음악과 함께 하는 모험특강'을 비

롯해 '무역학파와 함께하는 모험특강', '생태조경디자인학파와 함께하는 모험특강', 그리고 예술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진로 탐색이 이뤄지는 비술학파 재학생과 함께하는 모험특강 등이 눈길을 끈다.

각 강좌는 외부 저명인사의 재능기부 또는 기부금을 통해 이뤄지며 이 외 학과 또는 사업단에서도 자율적으로 전공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사회적 수요에 꼭 맞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우 큰사막교육개발원장은 "모험과 취·창업" 과목 개설은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학생 지원을 펼치는 대학의 노력과 외부의 적극적인 소통의 결과"라며 "전대 모험생들이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제2기 청년희망단 위원 공개 모집

전주시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주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제안할 '제2기 청년희망단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제2기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6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전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다면 누구나 이메일(mn85jun@korekr) 또는 온라

인(naver.me/Gnd69sf)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위촉된 위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수시 회의를 통해 지역enton의 문제에 대한 발굴·조사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청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민 생각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바탕, 25일까지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 신청 · 접수

전주시 직원들이 안정적 협력수급과 자발적인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시장의 협력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와 대학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하절기 협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총 3자례 걸쳐 사랑의 협력운동을 전개한다.

전체 협력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는 하절기 혈액학보를 위해 8일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11일 덕진구청과 14일 완산구청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현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를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나눔 시장의 협력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전주시는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꿈꿀 공모사업'을 접수 받는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 원도심 지역으로, 전주 원도심 재생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나 단체면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길 원하는 공동체 또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종남문2길 137)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재생과(063-281-5119) 또는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63-292-511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과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0일 전주 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홀에서 사업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길 원하는 공동체 또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주시

/인재용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훈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 싶은
교과
도서

자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호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긴장 기분은 정향외과로 달려가 훈체어를 빌리자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있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